

월간

공군



제543호 09

- 04 기획
똥똥이! 새로운 의복캐릭터의 등장



- 16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F-16(Fighting Falcon)



- 10 특집 I
안녕! 공군 문화예술
IV. 공군 문화예술 활동 방향에 관한 소고



- 18 Aero Detail
러시아의 주요 전투기 II



- 14 특집 II
미래를 향한 공군의 준비 에어포스 퀀텀 5.0
공군 창군 70주년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를 향한 도약

- 24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세계 공군력 4위, 인도공군

표 지 (앞) 공군 기획 상품과 함께 추석을 즐기는 하늘이프렌즈 (병장 황원진)

발 행 일 자 2023년 9월 1일(통권 제543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전자도서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3080290)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28 **내 옆의 공군인**
 사워 비어 명가 (주)와일드웨이브 김관열 대표



48 **시와 비행하다**
 신도시(新都市)

50 **생각하는 그림**
 도(刀)와 검(劍)

52 **공군인의 편지**
 풍요로운 추석, 잊혀가는 추억
 (정보체계관리단 계획운영과 상병 박승원)

3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53 **책 읽는 공군**
 『인생우화』 우리들의 이야기
 (제34전대 제316대 운영계 일병 성민준)

42 **슬기로운 장병생활**
 현장에 답이 있다.

54 **토닥토닥**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

44 **한 달, 한 권**
 그리스인 조르바를 닮은 아나운서의 책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46 **영화로운 나날**
 「엘리멘탈」
 내가 원하는 네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너



월간
공군





똘똘이! 새로운 의복캐릭터의 등장



공군은 공군이 추구하는 가치, 공군의 이념과 특성 등을 다양하고 독창적인 상징을 개발 함으로써 시각화해왔습니다. 공군 의복캐릭터/픽토그램/서체, 하늘이프렌즈 등의 상징 이 모여 '공군'이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대내외의 공감과 소비를 통해 공군의 이미지(인상)와 정체성이 결정되고, 가치와 본질이 드러납니다. 즉, 공군이 공군다 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생명력이 있어 발전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변화에 맞춰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미래 공군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결과를 도출 해야 합니다. 즉, 상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리뉴얼(renewal·개선)이 필요합니다.



2019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공군 의복캐릭터'로 받은 본상 (브랜딩 부문) 상패

2019년, 공군 의복캐릭터(이하 '의복캐릭터')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¹⁾ 중 하나인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에서 본상을 받아 화제에 올랐습니다. 의복캐릭터는 전투복·정복·약복·비행복·정비복 등 공군 장병이 임무를 위해 착용하는 50여 종의 피복을 캐릭터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똘똘이 의복캐릭터'는 의복캐릭터의 개선 버전으로,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이성선 병장(병 837기)이 직접 기획하고 개선했습니다. 이 병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똘똘이 의복캐릭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제작병으로서의 고민

'공군'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확장하는 임무를 가진 디자이너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군 콘텐츠제작병으로서 한 획을 긋고 싶다는 열정으로 입대한 저는 마스크트/의복캐릭터/픽토그램/서체 등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은 다 나온 상황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디자인에 대항할 기발한 구상이 떠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새로 만들 수 없다면 바꾸는 것도 방법! 개선이 필요한 디자인을 고민했습니다.



- 1 하늘이프렌즈
- 2 공군 픽토그램
- 3 공군 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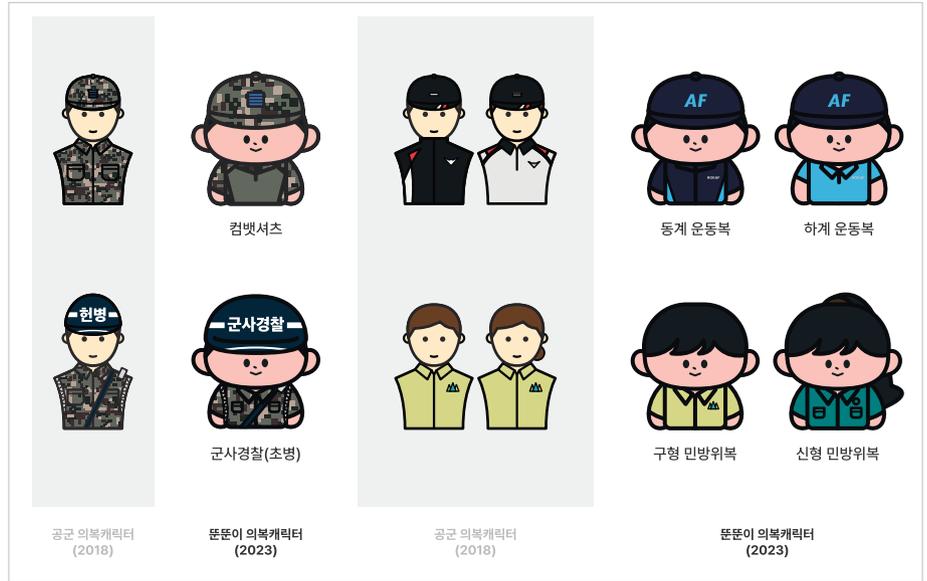
'똘똘이 의복캐릭터'를 기획한 이성선 병장

1)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reddot 디자인 어워드

**툰툰이 의복캐릭터의
출시 이유와 특징**

그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로 개선할 디자인을 의복캐릭터로 선택했습니다.

첫째, 기존 의복캐릭터 제작연도가 2018년으로, 출시된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그새 컴뱃셔츠가 새로 나오고, 병사 운동복과 간부 운동복이 통일됐습니다. 또, 헌병 특기 명칭이 군사경찰로, 민방위복 색상이 노란색에서 청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복제 변화의 반영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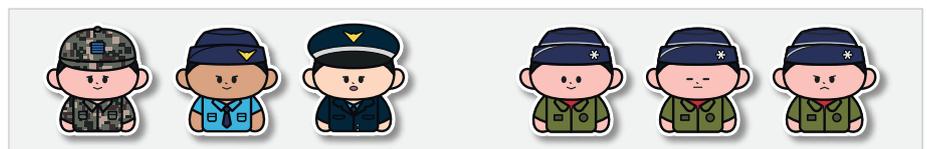


툰툰이 의복캐릭터에 반영된 복제 변화

둘째, 의복캐릭터에서 인물이 아닌 의복이 주인공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군인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출시된 디자인인 만큼 의복을 입은 인물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의복을 입은 사람’에 집중하도록 의복과 사람의 비율을 1:1로 조정해 시각적 안정감을 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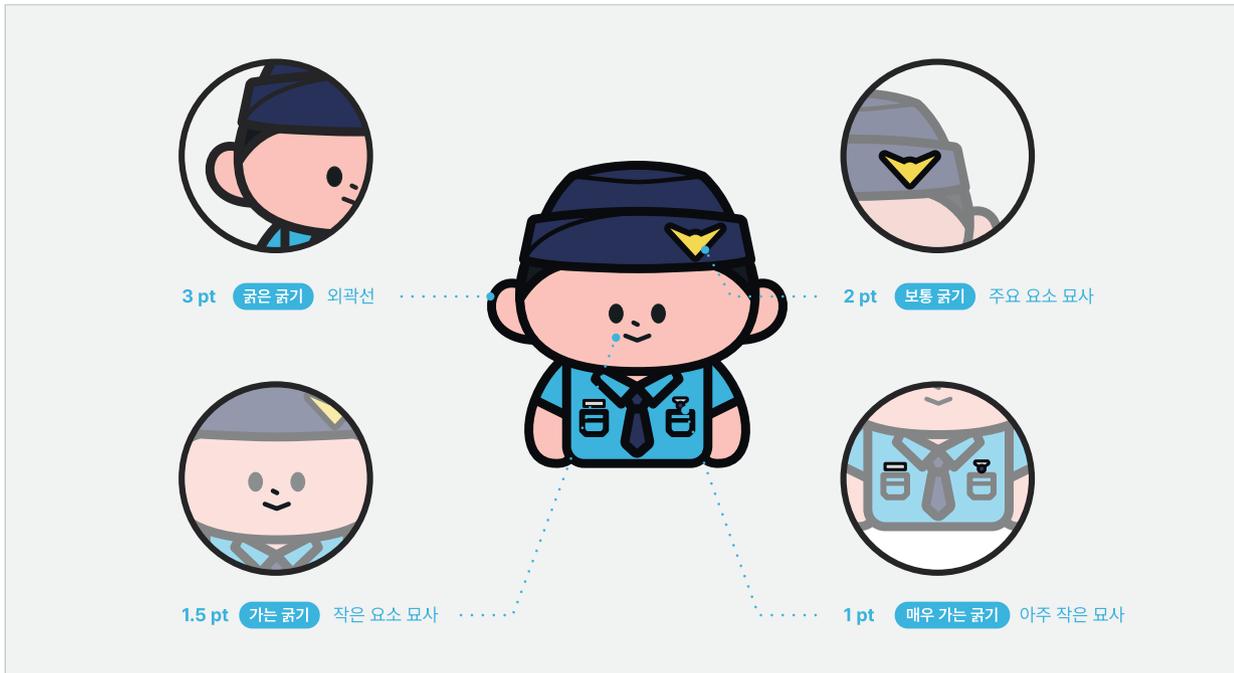
셋째, ‘하늘이프렌즈’의 하늘이와 비슷하게 둥글고 귀여운 조형으로 만들어 공군 캐릭터의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늘이의 응용형 제작이 어려운 분들이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좋은 대체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집중했습니다. 기존 의복캐릭터가 여러 의복을 입은 공군인의 모습으로 각 계급과 특기를 대표했다면, 툰툰이 의복캐릭터는 다양한 표정과 피부색을 선택할 수 있고, 선글라스와 마스크 등의 액세서리도 선택·착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가능합니다.



툰툰이 의복캐릭터의 다양한 피부색(왼쪽)과 표정(오른쪽)

툰툰이 의복캐릭터는 9월, 1차 출시 이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욱 다채로운 공군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똘똘이 의복캐릭터 라인 가이드

똘똘이 의복캐릭터의 작명과정

캐릭터의 정체성을 한 단어에 담아내면서, 의복캐릭터의 새로운 버전이라는 것도 알릴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의복캐릭터’라는 이름 앞에 브랜드 정체성(BI²⁾을 담을 수 있는 형용사를 붙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 포동포동, 동글동글, 똘똘 등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똘똘하다’의 ‘똘똘’이 캐릭터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잘 담아내면서 부르기 쉬운 이름이라 ‘똘똘이 의복캐릭터’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똘똘이 의복캐릭터를 만든 소감

제 전임자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듯 미디어콘텐츠과에서 나오는 디자인과 콘텐츠들이 앞으로 공군에 입대하게 될 예비 공군인들에게 좋은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연말에 전역을 합니다. 미래의 후임이 제가 남긴 디자인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색을 입혀나가며, ‘공군’이란 브랜드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사회에서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성선 병장의 인터뷰는
'대한민국공군' 유튜브에서
9월 중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똘똘이 의복캐릭터'는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 블로그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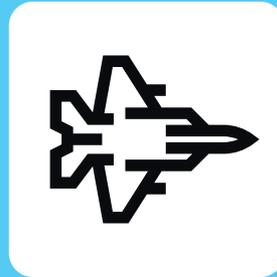
2) BI(Brand identity): 브랜드의 가치와 개성을 이미지로 통합하는 작업. 기업 경영전략의 하나로서 상품의 매력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 월간 『공군』 9월호 이벤트 •

암포지 속 숨은 그림 찾기

공모 기간: ~'23. 9. 20.(수)



- 참여방법**
- 1 월간 『공군』 9월호 표지에서 위의 7가지 숨은 그림을 모두 찾아 표시한다.
 - 2 월간 『공군』 이메일로 정답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보낸다.

결과발표 공군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제출** afzine@korea.kr

※ 택배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가 부족하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정답자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25분께 하늘이프렌즈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는 병영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

군대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근거는 아주 간단명료하다. 「문화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문화권’이란 이름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들도 엄연히 국민의 일원으로서 문화권을 보장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문화권을 3가지로 나누어 정의한다. 각각 창조(창작)의 권리, 참여의 권리, 향유할 권리로 구분하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 현실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문화적 활동의 제약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매우 강력한 법적 규정이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병영 생활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일상이 이뤄지며, 시간 활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사생활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사회와 비교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측면을 강하게 내포한다. 즉,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병영 생활 자체가 어느 정도 제약 요소다. 그래서 과거 소외계층 문화향유 연구에서는 문화향유의 정책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삼고, 문화 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정리했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원인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일시적 격리	문화적 차이	원인들이 복합된 경우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교정시설 및 소년원 수용자, 군인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등

군인은 ‘일시적 격리’로 인한 제약으로 분류된다. 시공간 활용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병영생활 특성상 병영 내 문화예술 활동은 주로 그 제약 안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부대 방문을 통한 공연 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이 주를 이루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보내며 온라인을 통한 원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진중문고 등을 통한 독서문화 진작 활동, 영상콘텐츠 감상에 관한 프로그램 등이 지원 중이다. 군대라는 현실적 조건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도 안에서는 꽤 다양한 활동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군 생활의 문화적 욕구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까?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많이 부족해 보인다.

병영 문화예술 활동의 한계

일단 공급되는 프로그램들이 참여자들의 개별적 문화 취향을 모두 반영하기 힘들다. 이것은 한국의 공공 문화프로그램 (향유/참여)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긴 하다. 개개인의 미세한 취향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런데 공공 문화프로그램은 그 사적 취향의 다양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결국 더 많은 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한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설계된다 해도 다양한 취향에 모두 대응될 수 없다. 이 문제는 군대라는 조건에서는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취향 불일치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병영 안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특히 대중적이지 않은 취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만나기 어렵다. 예컨대 부대 내에서 K-POP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을 볼 확률은 비교적 높지만, 실험적 연극 같은 걸 볼 확률은 매우 낮다. 이런 다양성 부족은 자칫 군대 문화예술 활동의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방식을 통해 선택의 다양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대면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원격활동은 아무래도 보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병영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공군장병들

이런 점에서 부대 내 동호회(동아리) 활동의 활성화가 주목할 만하다.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는 대단히 어렵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협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일상화할 수 있다. 동호회 활동은 ‘함께’ 활동을 도모하는 특성이 있다. 그것이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해진 현대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협업과 상부상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자기발전을 위한 능동성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동호회 활동 등의 공동 활동은 협업의 측면도 있지만, 경쟁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적 경쟁은 개개인에게 자극제가 되며, 이는 고되지만 단순하기도 한 병영 생활의 건강한 활력이 될 수 있다.

셋째, 문화예술 활동의 본질에 좀 더 가깝다. 문화예술 활동은 대인관계를 전제로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전제가 충족될 때 문화예술 활동이 갖는 다양한 장점이 살아난다.

병영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것이 정책적으로 시도된다는 자체가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병영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영 문화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즉 병영문화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책을 통한 구조적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병영에서 장병들이 실제 겪는 문화적 환경의 여러 요소를 세분화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 동호회(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부대 내 작은 문화공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동호회 활성화가 쉽지 않지만, 공간거점의 조성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모임을 인위적으로 조직하거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공간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공간이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거나 규모가 클 필요도 없다. 부대 내부의 작은 유희공간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 활동은 무엇인가를 직접 스스로 만들어낼 때 흥미 유발 효과가 훨씬 크다. 청년 시기엔 그런 성향이 더욱 강하다. 상당수의 장병은 군인이기 이전에 청년층에 속한다. 그들의 역동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글쓴이 **염신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석사)했고 국제문화연구과정(박사)을 수료했다. 다큐멘터리 연출로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했으며, (사)한국민예총 정책기획팀장('05~'09), 문화예술사회적기업 자바르떼 기획팀장('10~'12), 국회 도종환 의원실 문화정책 비서관('12~'14)을 거쳐 2015년부터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으로 문화정책 입안, 컨설팅, 평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18~'21)를 역임했다.

E-Book 자료관

매월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월간『공군』

E-Book으로 월간『공군』을 만나면 **환경보호까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공군지를 온라인에서
afzine.co.kr



E-Book 열람은 물론 구독 신청,
구독 취소, 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편집실에 전할 이야기와 제보는
'독자 의견'으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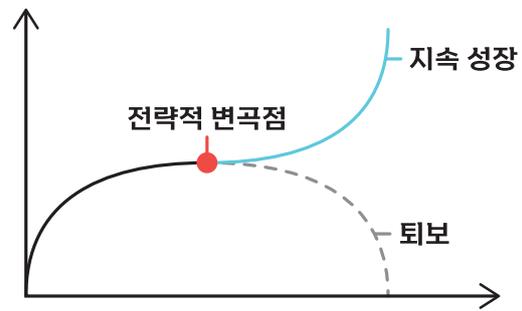
접속방법 (택1)

검색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주소창에 afzine.co.kr을 입력하세요.



- 공군 창군 70주년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를 향한 도약 -

전략적 변곡점*에서 과거의 경영 방식을 변함없이 고수(固守)한다면 기업은 퇴보할 것이고, 반면에 과거와 다른 근본적인 변혁을 이뤄낸다면 지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변곡점은 국방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창군 7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공군은 전략적 변곡점에 도달한 것인지 미래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인지 점검해야 했다. 과거보다 다양해진 안보위협과 과학기술 급변이라는 국방 환경 속에 공군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 시기였다. 안보위협 측면에서 지역 내 전통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더욱 다양해졌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은 지상/해양/공중이라는 전장 영역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방향으로 전투 수행의 개념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빠른 국방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군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전략적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참고) 전략적 변곡점 그래프

그리고 그 시점에 미국의 국방 조직들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美 육군은 다영역 작전(MDO, Multi Domain Operation) 개념을 제시하며, 전투 영역을 우주와 사이버까지 확대했다. 또, 美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이라는 새로운 전투 개념을 처음 소개한 상태였다. 이렇듯 다른 나라의 국방 조직들이 긴박하게 변화를 준비하는 시점에 대한민국공군이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즉, 당시를 국방 환경이 급변하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규정하고, 창군 100주년이 될 향후 30년까지의 미래를 설계해야 했다. 그 결과물이 미래 공군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은 ‘에어포스 퀀텀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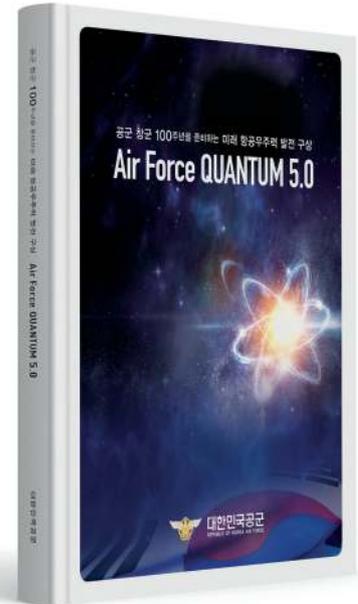
제목에 에어포스 퀀텀 5.0의 퀀텀(양자·Quantum)이란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오늘날 물리학적 발전과 법칙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미래형 과학기술의 원천을 강조하고,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공군의 미래 지향점을 찾고자 했다. 즉,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 근거해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이기도 하다.

*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 경영 전략에서 기업의 사업 영역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서 기존의 경영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통제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시점

‘에어포스 퀀텀 5.0’은 ① 국가 차원의 미래 군사적 역할 도출, ② 미래 공군의 정체성 재정립, ③ 공군 능력 발전전략 제시라는 세 단계를 통해 미래 지향점을 설정했다. 동시에 최첨단 과학기술군인 공군의 상징성을 부각하려 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이 당시까지 발전시켜 온 우주 역량을 체계화하면서 미래 과학기술과 융합했다. 공군이 국가안보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우주발전계획을 ‘스페이스오디세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담았다.

우주력 외에도 과학기술 전망에 따라 공군이 선택한 핵심 분야로 사이버·전자기전, 미래지휘통제체계, 전력체계의 융복합, 인력 및 조직 인프라 등을 식별해 에어포스 퀀텀 5.0의 ‘5대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미래환경에서의 선택 주체가 사람과 조직이란 전제 아래, 미래 인재 육성과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도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발간된 에어포스 퀀텀 5.0에서 당시 최초의 화두로 제기했던 퀀텀 사이언스, 모자이크전, 다영역(전영역) 전투, 스페이스오디세이 프로젝트 등의 개념이 오늘날 대단히 친숙하게 쓰이고 있다. 그만큼 2019년에 전망한 미래가 현실화했음을 의미하지만, 2023년은 에어포스 퀀텀 5.0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간임을 뜻하기도 한다. [\[4\]](#)



『에어포스 퀀텀 5.0』 표지



에어포스 퀀텀 5.0의 ‘5대 프로젝트’는 다음 호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합참 핵WMD대응센터 차장, 제3훈련비행단장, 공군대학 총장을 역임한 공군 전투조종사(F-16) 출신 예비역 준장(공사 37기). 국제정치학 박사(미국 미주리 대학교)이며, 하버드 대학교 웨더헤드센터 객원연구원이었다. 『제복과의 대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라이벌과 민군관계』, 『민주국가의 전쟁: 이라크 전쟁과 코소보 전쟁 그리고 한미동맹』 등 3권을 저술했다. 현재 숙명여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헤럴드 경제에서 ‘김광진의 남산 공방’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F-16 FIGHTING FALCON

‘필승 보라매’로 명명된 4세대 다목적 전투기. 한국형 F-16으로 F-15K와 함께 대한민국공군의 주력 기종이다. 도입 당시 국외 판매 F-16 중 최초로 암람(AMRAAM)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성능개량을 거치며 대함유도탄(Harpoon)과 대방사유도탄(HARM) 등의 무장운용능력과 자체 방어용 전파방해장비(ASP) 같은 항전장비도 추가됐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23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FA)까지 참가했으며, 2022년엔 피치블랙(Pitch Black)에 최초 참가하기도 했다. [☞](#)





길이 15.06m

폭(너비) 9.96m

높이 4.88m

최대속도 마하 2.29 (약 2,802km/h)

무장

AIM-120, AIM-9, JDAM,
SPICE-2000 등

Aero Detail

러시아의 주요 전투기 II

가장 빠른 요격기 MiG-25와 MiG-31



AA-6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을 탑재한 MiG-25 요격기

1950년대 말 미국이 마하 3급의 전략폭격기 XB-70 개발에 착수하자 구소련은 다급해졌다. 마하 3급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마하 3급의 요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61년에야 마하 2급의 MiG-21을 개발한 구소련은 마하 2.5(3,060km/h)를 넘어 바로 마하 3급의 MiG-25 요격기 개발에 착수했다.

MiG-25의 존재가 서방측에 처음 확인된 것은 1967년 7월이었다. 1967년에 MiG-25는 2t의 무장을 탑재하고 고도 30km에서 무려 2,980km/h로 비행하는 경이적인 속도 기록을 세워 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일에 가려져 서방측에는 환상의 전투기로 각인됐던 MiG-25의 실체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구소련의 벨렝코

중위가 1976년 9월 MiG-25를 몰고 일본에 망명하면서 부터다. MiG-25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MiG-25 레이더에 구식 진공관이 사용됐고, 저공에서 비행 효율이 떨어지는 등 환상의 전투기는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출력 레이더와 AA-6 대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하고도 고공에서 마하 2.8(3,427.2km/h)의 고속 비행이 가능한 것은 서방측 어떤 요격기도 불가능한 성능임은 분명했다.



마하 2.8(3,427.2km/h) 이상의 고속 비행이 가능해 MiG-25는 정찰기도 파생됐다.

고공 고속 비행능력이 우수했던 MiG-25는 미국이 전략 폭격기 침투 방식을 고공 침투에서 저공 침투로 변경하면서 저공 표적에 대한 성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970년 여름부터 시작된 미국의 B-1 폭격기 개발은 새로운 개념의 요격기 개발을 촉진했고, 결국은 MiG-25를 토대로 재설계한 MiG-31의 탄생을 가져왔다. MiG-31은 외형이 MiG-25 전투기와 상당히 유사해 한때 ‘슈퍼 폭스배트’로 알려졌었지만, 1982년에 ‘폭스 하운드’로 NATO 코드명이 결정됐다.

MiG-25를 새롭게 재설계한 복좌형 전투기 MiG-31은 세계 최초로 위상배열레이더(PAR)¹⁾를 탑재했다. 강력한 레이더 성능은 MiG-31에도 이어졌다. 4대로 구성된 MiG-31 편대는 폭 800~900km의 범위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 제한적인 조기경보기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방공임무에서 MiG-31은 Il-76 조기경보 통제기와 연계해 방공망을 구축한다.



저공 표적에 대한 요격능력을 향상시킨 MiG-31 요격기

MiG-31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량은 최대 8발이며, 날개 하부의 파일론과 동체 파일론에 AA-9와 AA-8 아피드 미사일 등을 혼합 장착한다. AA-9는 미국의 AIM-54 피닉스 미사일과 비교되는 장거리 요격용 공대공 미사일이다. MiG-31은 고정무장으로 GSh-6-23 6총신 23mm 개틀링포와 탄약 260발을 탑재한다.

MiG-31은 실전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MiG-25는 다양한 경험이 있다. 1982년 6월 시리아 공군의 ‘폭스배트 A’ 2대는 레바논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F-15와 교전해 AIM-7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에 피격되어 격추됐다. MiG-25는 걸프전에서도 사용됐다. 당시 이라크 공군의 MiG-25 2대는 미공군 F-15C와의 교전에 역시 격추됐고, 지상에서도 수 대가 파괴됐다. 걸프전이 끝난 이후 1993년 1월에도 미국에 의해 1대가 더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MiG-25는 뛰어난 고속 순항능력과 고고도 상승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요격기다. 전투기끼리의 공중전 성능은 부족해도 MiG-25가 배치된 곳은 U-2와 SR-71 정찰기도 비행할 수 없었다. 비록 MiG-25 계열 전투기가 모든 면에서 탁월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조선이 필요로 했던 성능은 만족시켰고, 특히 궁극의 최대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MiG-25는 지금까지도 고속 요격기의 전설로 남아 있다.

1) 위상배열레이더(PAR, Phased Array Radar): 전파 송수신 모듈을 여러 개 붙여서 배열한 후 고정된 안테나에 배열된 각각의 레이더 소자가 송수신하는 전파의 위상을 개별 제어하여 목표를 탐색 및 추적하는 방식의 레이더

기동성이 우수한 MiG-29 전투기



북한 공군에도 도입된 MiG-29 전투기

MiG-29는 북한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다.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을 보유한 북한이지만, MiG-29는 북한에서도 가장 고성능의 기체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MiG-29는 구소련이 미국의 F-15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 말부터 Su-27과 더불어 개발에 착수한 전투기다. 처음 등장한 MiG-29는 조종사가 1명인 단좌 A형이며, 복좌형인 B형도 동시에 개발됐다. MiG-29UB 펄크럼 B형은 후방석을 추가하면서 연료 용량이 줄어들었고, 기관포와 적외선 탐색추적장치(IRST)는 유지되지만, 레이더가 없어 전투능력은 제한적이다.

우수한 기동성으로 서방측에 주목을 받았던 MiG-29는 실전에서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 공군의 MiG-29는 美 공군의 F-15C에 5기가 격추되는 참패를 기록했다. 다만 당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전력을 고려한다면 이라크 공군의 전투기가

다른 기종이었다라도 일방적인 격추를 모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걸프전 결과만으로 MiG-29의 전투능력을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 공군이 보유한 MiG-29를 이용해서 방측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실시해 성능을 평가한 적이 있다. 독일 공군은 F-15, F-16과 비교한 훈련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MiG-29는 F-16과의 근접전에서 대부분 선제 미사일 공격 기회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iG-29의 우수한 기동성과 더불어 AA-11(R-73) 고기동 단거리 미사일, 헬멧 조준기 덕분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MiG-29는 40년 가까이 생산되면서 다양한 파생형을 갖게 됐다. 가장 먼저 개량된 파생형은 기본형에서 동체 상부가 부풀어 오른 펄크럼 C형이 있다. 펄크럼 C형은 넓어진 동체 위에 전자장비를 옮기면서 연료탱크가 그만큼 늘어나 항속거리가 증가했다.



MiG-29SMT는 조종석 뒤에 연료를 추가해 크게 부풀어 올랐다.

MiG-29SMT는 연료탱크를 추가로 증가시키면서 항공전 장비들을 전반적으로 현대화시킨 기종이다. 비교적 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러시아 공군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공군은 전투기 전력 구성에서 고성능 기종인 Su-27 계열 생산에 상대적으로 주력하고 있어 MiG-29의 위



MiG-35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MiG-29 계열의 최종 파생형이다.

상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MiG 설계국은 기존 MiG-29를 크게 개량한 MiG-35 기종을 최근에 등장시킨 바 있다. MiG-35는 최신 전투기답게 추력편향 엔진에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까지 탑재하고 있어 향후 수출 시장에 어떠한 성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 Su-27 플랭커 계열

러시아의 Su-27 플랭커 전투기는 서방측의 F-15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전투기 중 하나다. 1969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Su-27은 1985년에 양산기가 처음 배치된 이래로 지금까지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다.

Su-27 플랭커는 최대이륙중량이 33t이 넘는 대형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기동성으로 유명하다. 특히 여러 에어쇼에서 선보였던 코브라 기동을 비롯한 특수기동은 기존 전투기와 차별화되는 플랭커 전투기만의 특징이 됐다. 코브라 기동은 비행 중에 순간적으로 기체를 수직에 가깝게 세워 비행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비행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적기가 후미에 붙었을 때 순간적인 감속으로 적기를 추월시켜 위치를 역전하는데 응용할 수도 있다.

Su-27 시제기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27개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Su-27이 갱신한 세계 신기록에는 과거 F-15가 수립한 수평 최대속도는 물론 상승시간, 단거리 이

착륙 기록 등 주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Su-27은 기동성뿐만 아니라 3,000km가 넘는 항속 능력을 보여 적진 깊숙이 작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장탑재능력도 우수해 각종 공대공·공대지 무장 8t을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주력 전투기답게 Su-27의 파생형은 매우 다양하다. Su-27은 처음 양산형이 등장하면서 기본형과 함께 Su-27UB 복좌형도 배치됐다. Su-27UB는 복좌형이지만 기본적인 전투성능에는 큰 변화가 없고, 기내 연료 감소로 인해 항속 성능이 일부 감소했다.

제공 전투기인 Su-27 플랭커는 복좌 장거리 전투기형 Su-30 계열과 단좌 다목적 전투기형 Su-27M 계열로 발전했다. Su-30은 기본적으로 복좌형에 공중급유 능력을 갖춰 장거리 요격능력이 강화됐다. 이러한 장거리 임무 능력을 이용해 대지 공격능력을 추가한 것이 Su-30M 계열 전투기다. 1991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Su-30M 계열

은 수출형인 Su-30MK로 발전해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에 수출됐다. 중국은 Su-30MK 계열 중에서도 Su-30MKK, 인도 Su-30MKI, 말레이시아 Su-30MKM, 알제리는 Su-30MKA 기종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Su-27을 면허 생산하면서 J-11로 명명했고, Su-30에 해당하는 J-16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

Su-27M 계열은 Su-27 단좌 기본형에 각종 공대지 미사일, 정밀유도 무장 등 공대지 임무 능력을 추가했다. 전방 동체에 카나드²⁾를 달아 초기에는 Su-35로 명명되기도 했지만, 최근의 Su-35와는 다른 기종이다. Su-27은 다목적 전투기를 넘어 장거리 침투폭격기로 재설계되기도 했다. Su-32FN 또는 Su-34로 불리는 폭격기형 플랭커는 특이하게도 조종사 2명이 병렬로 앉는 방식이다. Su-27 계열에는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해군형 플랭커도 있다. 초기에 Su-27K로 불린 함재 전투기형 플랭커는 최종적으로 Su-33으로 명명됐다. 함재형 플랭커는 주날개를 위로 접을 수 있고, 항공모함 이착함에 필요한 장비, 강화된 착륙장치, 전방에 카나드 조종면이 추가됐다.



Su-27 계열의 최종 파생형인 Su-35S는 가장 위협적인 기종이다.

가장 최신형의 플랭커 전투기는 Su-35S형이다. 러시아는 5세대 전투기로 Su-57을 등장시켰지만 당분간 플랭커 계열을 주로 생산할 계획이어서 2020년대에도 플랭

커 계열 전투기는 명실공히 러시아의 주력전투기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Su-57 펠런(Felon) 스텔스 전투기



러시아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Su-57

Su-57은 러시아가 미국의 F-22, F-35에 대응하고자 추진했던 I-21 PAK FA 사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전투기다. PAK FA 사업은 I-90에 이어 1998년에 시작된 TTA(Tactical Technical Assessment)에서 비롯됐으며, 신형 전투기가 300대 필요하다는 러시아 공군의 2001년 발표에 따라 2004년 12월에 계획이 확정됐다.

2010년 1월, 시제기(T-50)의 첫 비행에 성공한 Su-57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동체 내에 무기고를 설치했고, 초음속 순항 성능을 갖추고 있다. Su-57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요구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최대속도를 포함한 기동성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형상 측면에서 Su-57은 대형화된 앞전(뿌리)연장(LERX)³⁾ 날개를 적용했고, 엔진 간격을 벌리고 일체화된 날개-동체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했다. LERX는 특이하게도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직미익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을 채택했고, 기존 전투기보다 소형화했다. 일반적인 스텔스기와 마찬가지로 주익, 미익의 앞전, 뒷전 등의 후퇴각을 통일했다.

2) 카나드(Canard): 프랑스어로 '오리'라는 뜻으로, 비행기의 동체 앞부분에 있는 작은 날개를 말한다.

3) 앞전연장(LERX, Leading-Edge Extension): 날개의 앞전뿌리(root)에 약간 확장된 표면을 부착함(일반적으로 삼각형 모양)으로써 부가적인 양력을 발생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고양력장치

엔진은 타입 30을 장착하려 했지만, 개발 일정을 고려해 AL-41F1 엔진을 초도 양산형에 먼저 적용했다. AL-41F1 엔진은 최대 추력은 약 33,000파운드급이고, 타입 30엔진은 약 40,000파운드로 F-22의 엔진보다 추력이 크다. 엔진 노즐에는 기동성 향상을 위해 3D 추력편향장치가 설계돼 있다.

센서로는 기수에 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함께 운용한다. 그리고 LERX에 일체형 방식의 L-밴드⁴⁾대역의 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를 추가했다. 기수 측면에 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는 Su-57이 세계 최초다. 원래 F-22 전투기도 기수 측면에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 예비공간을 설계에 반영했지만, 비용을 고려해 실제 탑재되진 않았다. Su-57은 적에게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후 기수 측면의 레이더를 통해 기수를 적의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도 발사한 미사일의 데이터링크 최신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Su-57은 미사일의 사거리를 상

대적으로 증대시키면서도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가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전술(F-pole) 구사가 가능하다.

생존장비 측면에서 Su-57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를 세계 최초로 탑재한 전투기이다.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접근하는 적외선 유도미사일에 대하여 적외선 레이저를 조사(照射)해 미사일 탐색기를 기만하는 역할을 한다. 미사일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기체 전방위의 적외선을 감지함으로써 상황인식 및 미사일 정보가 가능한 101KS-V 적외선 센서도 탑재하고 있다.

Su-57의 내부 무기고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전용의 무기고가 주의 안쪽 하부에 총 2곳이 있고, 동체 중앙 하부에 주 무기고가 위치한다. 주 무기고에는 각종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장이 탑재된다.

2020년대에 배치된 전투기인 만큼 Su-57은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동되는 무인기는 S-70 오크호트닉이 유력하다. [\[4\]](#)

4) L-밴드(L-band): 레이더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1~2GHz)



글쓴이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세계 공군력 4위, 인도공군

인도는 1857년 무굴제국이 멸망한 후 영국식민지로 편입됐다.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면서 힌두권인 인도와 이슬람권인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됐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3번, 중국과 1번 전쟁을 치렀다. 인도 인구는 약 14억 3천만 명(세계 1위)이며, 국토 크기는 약 329km²로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다. 언어는 영어 외 15개의 공용어가 있으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170달러 수준이다. 군사력은 현역 1,460,350명, 예비군 1,155,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뉴델리(New Delhi) 국제공항의 인도 공군박물관

뉴델리 국제공항에는 1932년 10월 8일에 창설된 인도공군의 역사를 오롯이 담은 공군박물관이 있다. 외형상 소박한 건물이지만 90년 전통의 각종 자료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 인도는 북서부 카슈미르(Kashmir)의 영유권을 두고 1948년 파키스탄과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치렀다. 1962년에는 중국과 히말라야의 국경분쟁 문제로 격돌했다. 인도가 전쟁에 휩싸이자 1965년, 파키스탄이 인도의 뒤통수를 치는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파키스탄-중국, 인도-소련이 외교적으로 밀착하는 계기가 됐다. 1971년 12월 3일, 방글라데시의 독립으로 또다시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파키스탄군은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전격전을 본떠 석양을 이용해 인도 공군기지를 기습했지만, 파키스탄공군의 실력은 한계가 있었다. 튼튼한 격납고 속의 인도 전투기를 격파할 수 없었고, 어둠으로 재출격

기회조차 없었다. 더구나 인도의 소련제 조기경보통제기(AWACS·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가 450km 거리에서 날날이 지켜보고 있던 것이다. 공군박물관은 전쟁영웅 동상과 함께 그들의 출중한 전투기량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2019년 폴와마(Pulwama) 테러로 촉발된 공중전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된 인도공군 항공기와 폭탄



인도 공군박물관의 전쟁영웅 동상과 탑승 전투기 모형



인도 공군박물관에서 현장학습 중인 인도 학생들의 모습

폴와마 테러와 발라코트 공습, 핵보유국 간 벌어진 치열한 공중전

2019년 2월 14일, 카슈미르 폴와마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자살 폭탄 테러 차량이 이동 중이던 인도 중앙예비경찰부대 차량에 돌진했다. 무려 인도 경찰 4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 전역이 테러단체의 배후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시위로 들끓었다. 같은 해 2월 26일 오전 3시 30분(현지 시각), 인도공군의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가 파키스탄 발라코트(Balakot) 지역에 있는 테러리스트의 캠프를 공습해 300여 명을 살상했다. 1971년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후 48년 만에 인도-파키스탄 국경을 넘어간 전투기 공습이다. 다음 날에는 파키스탄공군의 F-16 전투기의 인도 공습으로 양국 간 공중전까지 벌어져 인도공군의 MiG-21 2대가 추락했다. 문제의 땅 카슈미르 분쟁은 1947년

부터 시작됐다. 인도는 대부분 이슬람교도가 거주하는 카슈미르의 지역 실세들을 회유해 카슈미르 상당지역을 영토로 편입했다. 90%가 산악 지대인 이 지역은 한반도와 비슷한 약 22만km², 현재 주민은 파키스탄령에 380만 명, 인도령에 820만 명이 살고 있다.



카슈미르 테러 사건에 대한 인도 학생들의 항의행진

암리차르 국경 도시의 전쟁박물관

뉴델리에서 기차로 14시간 걸려 북부 국경 도시 암리차르(Amritsar)에 도착했다. 이 도시의 전쟁박물관은 1947년 대규모 인구이동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인위적 국경설정으로 힌두교도는 인도로,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으로 대대적으로 이주했다. 이웃은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마을은 불타고, 상점은 약탈당했다.

이곳에는 시크교도의 성지 '황금사원(Golden Temple Plaza)'이 있다. 성지에 들어갈 때는 발을 깨끗이 씻고, 맨발로 들어가야 한다. 넓은 호수에는 시크교도들이 물에 들어가 회개 기도를 드린다. 곳곳에 터번을 쓰고 창을 든 안배병들이 관객들에게 순례자 급식소에서 무료로 점심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친절히 알려준다. 그러나 이때 먹은 음식이 대형 사고를 일으킬 줄이야.



암리차르 전쟁박물관의 대형 상징물 전경



암리차르의 시크교도 성지 '황금 사원'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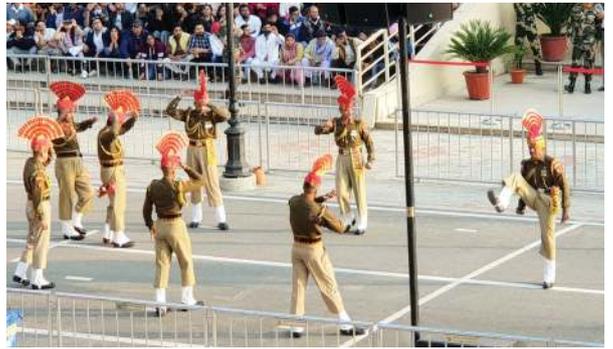
양국 응원전과 함께 펼쳐지는 국기강하식

암리차르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의 '와가(Wahga)' 국경검문소에서는 매일 오후 5시, 인도/파키스탄군의 독특한 국기강하식이 열린다. 철책선 양쪽에서 수천 명의 응원단이 경쟁적으로 소리치며 상대편을 자극한다. 인도군 진영에서 키 190cm의 여군 2명이 기관단총을 비껴 메고 당당하게 국경 철문 앞으로 나간다. '인도는 여군만으로 파키스탄을 제압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 조성이다. 뒤이어 닭 벋듯 군모를 쓴 의장병들이 다리를 쪽쪽 뺨으며 행진하고, 광장형 도로 안에서는 관람객들의 춤판까지 벌어진다. 건너편 파키스탄 진영에서도 검은 군복의 의장병들이 응원단의 광기 어린 함성 속에 군화발을 땅에 팡팡 찍으며 철문에 다가선다. 오후 5시 정각, 철문이 열리자 본격적으로 '상대편 기죽이기 시합'이 펼쳐진다. 양측 병사의 알통 자랑, 머리끝까지 다리 추켜올리기, 괴성으로 귀신 흉내 내기 등... 국기 강하가 끝나면서 양측 병사 간 '번개 악수'가 있다. 악수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상대 손바닥을 힘껏 친다. 방심하다 넘어지면 국가가 쓰러지는 것이다. 이 병사들은 틈만 나면 손아귀 힘을 기르는 훈련을 했으리라.

숙소로 돌아오니 아랫배가 살살 아파져 온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지독한 '인도설사병'임을 알게 됐다. 나중에는 오한으로 두툼한 점퍼를 입어야만 했다. 황금사원의 순례자 급식이 문제인 것 같았다. 순간의 방심으로 인도 답사 기간 내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와가' 국경검문소의 인도 측 응원단 모습



인도 의장병들의 '상대 기죽이기' 동작 모습



'와가' 국경검문소 국기강하식 행사 전경. 철책선 뒤편의 파키스탄 응원단이 보인다.



글쓴이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내 옆의 공군인

제52화
사워 비어 명가
(주)와일드웨이브
김관열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주)와일드웨이브 김관열 대표입니다. 관리 특기(現 재정)로 교육사 재정처에 복무한 뒤 중위(학사121기, 재정) 예편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는 전역 1년 후까지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제게 “세상을 경험해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공부하면 시험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할까?’ 하는 질문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관한 철학적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언젠가 양조장을 만들어 직접 술을 담가 먹자는 농담도 주고받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류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홈 브루잉(Home Brewing)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맥주양조사로 살기로 한 시발점입니다. 이제 평생 갈 제 친구이자 소명인 ‘와일드 비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일드 비어 양조를 하게된 계기

홈 브루잉 때부터 미국이나 유럽 맥주의 카피캣¹⁾보다는 국내의 원재료나 과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통 방식으로 누룩방에서 누룩을 디디고, 띄워 만든 부산의 대표 막걸리 금정산성막걸리를 마시며, ‘산업화로 정제된 술이 아니라 전통누룩을 이용한 술에서 진짜 술맛이 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테루아(terroir)²⁾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나라의 효모나 미생물을 이용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맛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맥주의 기본 원료는 맥아·홥·효모·물입니다. 맥아와 홥은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특정 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효모를 활용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국내 최초 와일드 비어 양조장이자 두 번째 사워 비어 양조장이 탄생했습니다.



양조장의 원재료 창고에서 맥주 양조과정을 설명하는 김관열 대표

1) 카피캣(coppycat): 최초로 시장을 여는 혁신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먼저 연 시장을 보고 기회를 노리다가 냉큼 기술력을 베껴서 시장점유율을 꿀꺽하는 기업
 2) 테루아(terroir): 포도주의 원료가 되는 포도를 생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토양, 기후 따위의 조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맥주 분류와 사워 비어

보통 맥주를 설명할 때 발효 방법에 따라 라거와 에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와일드 비어를 포함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일드 비어(Wild Beer)는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오크통(참나무통)에 서식하는 야생 효모·미생물에 의해 자연 발효됩니다. 전통적인 양조방식인데, 홉의 양과 과일 첨가 여부 등에 따라 맛이 다양하게 나기 때문에 라거나 에일보다 느낄 수 있는 맛의 범위가 훨씬 넓고 깊습니다.

에일과 라거는 정제된 양조효모를 특정해서 발효합니다. 양조효모는 상면(上面)발효, 하면(下面)발효 두 가지 효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면발효 효모는 상온에서 발효하며, 발효 중에 맥아즙 상단에 거품을 형성합니다. 상면발효 맥주를 **에일(ale)**이라고 하며, 바이젠·페일에일·스타우트&포터 등이 대표적인 에일로 재료의 향이 잘 느껴집니다. 하면발효 효모는 저온에서 잘 발효하고, 일반적으로 맑고 청량한 **라거(lager)**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거와 필스너가 대표적인 하면발효 맥주입니다.

추가로, **사워(sour) 비어**는 야생효모, 유산균 등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한 맥주로 와일드 비어의 한 종류입니다. 와인(포도주)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 지기에 일반 맥주와는 다른 산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벨기에의 람빅(Lambic)과 독일의 고제(Gose)가 대표적인 사워 비어입니다.



와일드웨이브 양조장의 스테인리스 발효조 설비



유럽·미국에서 수입한 포도주 참나무통(250L) 발효조 250여 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숙성한다.

지역과 상생하는 로컬 브랜드



(주)와일드웨이브 로고

(주)와일드웨이브는 와일드 비어의 ‘와일드’와 부산 바다의 파도를 연상시키는 ‘웨이브’를 합성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와일드 비어를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담겨있죠. 원래 송정에 양조장 겸 펍이 함께 있었는데, 최근 양조장을 기장군으로 확장 이전하고, 영도구 봉래동에 ‘사우어 영도’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부산을 느낄 수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이죠. 영업 전이나 휴무일에는 워케이션³⁾ 센터로 지역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맥주 중 하나인 ‘서핑하이’는 송정의 서핑(surfing) 문화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라거에 가까운 청량한 에일이죠. 그 외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디와일드웨이브’도 있지만, 순천 황매실, 제주 금귤, 경남 포도, 부산 기장 말기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맥주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자&민트, 산초&라즈베리 등 새로운 맛도 출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해 우리나라만의 사워 비어 맛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와일드웨이브의 프리미엄 맥주 4종



‘사우어 영도’의 해산물 요리와 수제 맥주들

지난 8월 18일(금)엔 부산관광공사와 협력 개발한 ‘Play.Work.Live Busan Busan’ 수제 맥주를 공개했습니다. 부산 바다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나무13(@__tree_13) 작가의 일러스트가 라벨로 사용됐죠. 새콤한 사워 비어에 부산 기장 꿀을 더해 달콤함과 향으로 부산의 생동감과 에너지를 담은 맥주입니다. 이처럼 지역 식재료·문화·특성 등을 담아 지역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메뉴를 개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lay.Work.Live Busan Busan’ 수제 맥주 라벨

3) 워케이션(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부상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하는 신조어다.

가장 사랑하고 추천하는 맥주

‘설레임’은 와일드웨이브의 첫 맥주이자 국내 크래프트 맥주계에서 사워 비어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맥주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주류대상 크래프트비어⁴⁾(수제맥주) 분야 대상을 받은 맥주죠. 2015년에 다른 양조장을 빌려 양조하는 집시브루잉으로 탄생한 설레임은 기본 맥주 재료만을 사용해 과일이나 첨가물은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사워 에일입니다. 드라이 호핑⁵⁾과 유산균 발효로 레몬, 열대과일 같은 산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함과 깔끔함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맥주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극적이고 특별한 맥주를 찾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워 비어가 낯선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2023 대한민국 주류대상 상패와 4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받은 ‘설레임’(맨 왼쪽 병)

수제 맥주 시장의 위기

코로나19 이전 대비 원재룻값이 250% 올랐습니다. 또, 제품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팔리고 있어서 계속된 기름값 인상 소식도 부담이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수제 맥주는 주로 오프라인 외식업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직격탄을



수제 맥주는 주로 케그(keg) 형태로 포장돼 오프라인 외식업체에 납품된다.

맞았죠. 온라인 주류 판매는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전통주만 허용하고 있어서 수제맥주의 활로는 마트, 편의점이었습니다. 당시 흡술/혼술 문화의 유행과 함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제 맥주들이 마트와 편의점으로 더욱 몰렸습니다. 최근에는 주류 트렌드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하이볼·전통주 등의 RTD⁶⁾(Ready to Drink)로 바뀌고 있어 위기설이 계속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4)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에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수제 맥주를 말한다. 수많은 맥주 제조자의 개성만큼 다양한 맛이 특징이다.

5) 드라이 호핑(Dry hopping): 맥주 발효가 끝난 후 숙성 공정에 홉을 첨가하는 방법

6) RTD(Ready to Drink): 구매 후 바로 마실 수 있는 캔/팩/병에 들어있는 음료로, 특히 하이볼, 칵테일 등 섞어 마시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상품화 시킨 것을 말한다. 특정 전문점의 레시피를 규격화해 캔/병음료 형태로 상품화한 것에도 쓰인다.

홈 브루잉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저는 홈 브루잉을 시작할 때 맥주 만들기 동호회 카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홈 브루잉을 시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홈 브루잉 장비입니다. 관심이 생긴 후 바로 장비를 구매하시기보다는 공방 등에서 원데이클래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니, 체험하신 후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좋은 술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술은 사드시는 것을 권합니다.(웃음)

앞으로의 목표

저는 20대는 도전하는 시기, 30대부터 경력을 고민하고, 계속 증명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군 장교로 복무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일한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이든 헤쳐 나갈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2013년 맥주 양조사의 꿈을 품고, 독일 베를린의 VLB 맥주 연구소에서 맥주 양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어메이징 브루어리를 거쳐 와일드웨이브에 정착했습니다. 양조사로서 증명해왔고, 이제 기업 대표로 증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환경은 어느 정도 갖췄기에 목표의 반은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제 맥주와 와일드 비어를 반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 비어만 만드는 양조장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세계맥주축제 '2023 더 나이트 페스타' 부스에서 맥주 슬러시를 판매 중인 김관열 대표

저는 출장을 나갈 때마다 항상 “양조사는 맥주를 만들고, 술은 효모가 만든다.”라는 말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양조사는 주방장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요. 오로지 효모나 미생물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양조사의 역할입니다. 국내에도 200여 개 되는 수제 맥주 회사들이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은 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도 양조사로서 증명해왔듯이 와일드웨이브 대표로서 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항공작전

폭염경보가 내려진 8월 3일(목), 대구기지에서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F-15K 전투기에 시원한 물줄기를 뿌리는 린스(CWR, Clean Water Rinse·간이 물 세척)를 하고 있다. 린스는 기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도로를 통과할 때 기체에 묻은 염분과 오염물질 등을 씻어내고, 작전 수행 중에 가열된 기체를 식혀주기 위한 과정이다.





UFS 연합연습의 시작과 함께 방어제공훈련 시행

공군은 8월 21일(월), '23년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합연습의 시작과 함께 방어제공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은 적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순항미사일이 아군 주요 시설물을 향해 발사되는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항공기 20여 대가 아군/적군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방공 관제대대와 미사일방어대대는 敵 항공전력에 대한 방공추적 임무를 수행했다.

※ 방어제공(DCA, Defensive Counter Air): 우군을 상대로 침투 및 공격을 시도하는 적의 공중공격 전력을 가능한 원거리에서 격파 및 무력화하거나, 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임무





주한 외국무관단 초청행사

정상화 참모총장은 8월 2일(수), 공군호텔에서 33개국 주한 외국무관과 배우자를 초대한 가운데 ‘주한 외국무관단 초청행사’를 가졌다. 참모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과의 군사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 외국무관단을 격려하며, 각 국가와 대한민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ASTI) 임원진 접견



정상화 참모총장은 8월 3일(목), 공군본부에서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Aerospace Strategy&Technology Institute) 조형희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접견하고, 국가 안보, 항공우주전략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군수사령부 '23년 UFS 연습 현장지도



정상화 참모총장은 8월 28일(월) 군수사령부를 방문해 '23년 UFS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작전지속지원능력 향상방안 현장토의'를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작전지속지원능력 향상방안 현장토의에서 "현대전에서 군수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전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최적의 대응방안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수사 전투지휘소를 찾아 UFS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며, "전시 핵심전력인 공군 장병들은 최고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투철한 정신력을 통해 '무형의 전력'에서도 적을 압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1전투비행단

동호해수욕장 환경미화

제1전투비행단은 8월 17일(목), 미여도 사격장에서 이뤄지는 공군의 작전·훈련에 대해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미여도 사격장 인근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을 찾아 환경미화 활동을 했다.



제10전투비행단

한미 연합 대테러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8월 18일(금), 기지 내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폭발물 테러, 차량강습 등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합동 대테러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에는 10전비 대테러 초동조치반, 육군 168여단, 수원 중부·남부경찰서, 美 6-52 방공포대대 등이 참가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815장 헌혈증 기부 챌린지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8월 14일(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333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 7월 21일(금)부터 8월 11일(금)까지 헌혈증 815장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많은 장병·군무원의 뜨거운 참여로 총 1,333장이 모였다.



제20전투비행단

이동형 탄약 조립 장비 설치훈련

제20전투비행단은 8월 22일(화), 대량 탄약 조립훈련을 했다. 90여 명의 장비/부품정비대대 장병들은 공대공 AIM-9, 공대지 GBU-12, MK-82 등 6종의 탄약을 조립했다. 탄약저장고에서 불출한 탄약을 조립장에서 조립해 전투비행대대에 인계 후 다시 조립장으로 옮겨 분해하는 과정을 반복 숙달했다.



제53특수비행전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 문화행사 축하비행

제53특수비행전대는 8월 15일(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 문화행사에서 축하비행을 했다. 이를 통해 블랙이글스는 행사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광복 정신을 되새기고 국가관을 고취하도록 이바지했다.



항공우주의료원

제1회 공군 우주의학 포럼 개최

항공우주의료원은 8월 11일(금),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15주년을 기념해 '공군 우주의학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공군 우주의학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공군본부 의무실장 환영사, 정경두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영상 축사, 특별 강연,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슬기로운 장병생활

현장에 답이 있다.



장박원 前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산업부와 정치부, 국제부 기자, 중소기업부 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현장에 가봤어?” 기자 시절 선배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보도자료만 보고 대충 기사를 썼다가 혼난 적도 많았다. 경험이 쌓이며 선배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알았다.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핵심을 잘못 파악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놓치기 쉽다. 기업에서도 ‘현장경영¹⁾’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 반드시 공장과 영업점 같은 일선 현장을 방문한다. 회사 현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현장을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영학 대가인 톰 피터스는 1982년 발간한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는 점원과 창고 직원들에게서 나온다.” 그는 이런 명언도 남겼다. “보고서 더미 속에서 파묻히면 아이디어는 생명력을 잃고 위원회와 프로젝트팀이 많아지면 서로 얽혀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실행을 방해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취임식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했다. ‘순막구언(詢瘼求言)’이라는 말이다. ‘백성이 겪고 있는 병폐(애로)를 묻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라’는 의미다. 다산은 오랜 유배 생활을 하며 백성들 곁에 있었고,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관리들이 민생을 돌아보지는 않고 서책에 파묻혀 ‘공자 왈 맹자 왈’ 하는 위선적 모습을 보며 가슴을 찢는 적도 많았을 것이다. 다산의 방대한 저작은 대부분 현장의 문제점을

1) 현장경영(MBWA, 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경영진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직원과 의사소통을 늘림으로써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영기법으로, 배회경영이라고도 한다.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청장도 다산의 이런 정신을 본받아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국세 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것이 어디 국세청에만 해당하는 말이겠나. 군 장교를 포함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는 현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한 중국 고대 역사서에는 지도자가 왜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중국 전국시대 제(齊) 나라 위왕은 강한 국가를 만들고, 민생을 잘 보살핀 뛰어난 군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하지만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까지 직접 챙길 수는 없기에 지방행정은 지방관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현과 즉묵이란 고을을 각각 다스리는 두 지방관에 대한 조정 대신들의 평가가 이상했다. 많은 이들이 아현을 다스리는 대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위왕이 물어볼 때마다 최고의 지방관이라는 평가가 돌아왔다. 반면 즉묵을 다스리는 지방관에 대해서는 악평이 쏟아졌다. 위왕이 보기에 즉묵 대부는 언행이 신뢰감을 주는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많은 조정 대신들이 그를 비난하거나 낮게 평가했다.

위왕은 조정 대신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때 재상 추기가 두 고을에 은밀하게 사람을 파견해 감찰하는 것을 제안했다. 위왕은 현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군주였다. 그는 즉시 아현과 즉묵으로 암행 감찰사를 보냈다. 현장을 면밀하게 둘러 보고 온 감찰사의 말은 조정 대신들의 평가와 정반대

였다. 즉묵은 논밭이 잘 정리돼 있고, 백성은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관리들은 백성의 애로를 즉시 해결했고, 송사(訟事)도 많지 않았다. 즉묵 대부는 고을을 다스리는 데 전념해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다. 그러니 멀리 도성에 있는 조정 대신들을 챙길 겨를이 있었겠나.

아현도 조정 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마을은 황폐했고, 백성은 가난 속에 살았다. 지방 관리의 가렴주구²⁾로 풍년이 들어도 백성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아현의 지방관은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는커녕 민생을 더 악화시켰다. 악정을 견디지 못하고 고을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아현 대부의 관심사는 오직 좋은 자리로 승진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의 고위 대신들에게 아부하기 바빴다.

감찰사 보고를 받은 위왕은 아현 대부와 즉묵 대부를 불렀다. 먼저 즉묵 대부에서 말했다. “그대는 고을을 다스리는데 전력을 기울이며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았다. 더 큰 고을을 상으로 내리겠다.” 이어 아현 대부를 불러서는 이렇게 꾸짖었다. “너는 고을과 백성을 위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아부만 일삼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위왕은 아현 대부에게 뇌물을 받은 조정 대신들도 극형에 처했다. 현장 경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아무리 꼼꼼하게 보고를 받아도 현장에 가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마련이다. 현장은 말로 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장은 성공의 열쇠를 텀로 주기도 한다. 

2)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형벌을 내리며,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한 달, 한 권

그리스인 조르바를 닮은 아나운서의 책



편성준 작가

20여 년간 카피라이터로 근무했다. 퇴직 후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여보, 나 제주에서 한 달만 살다 올게』, 『살짝 웃기는 글이 잘 쓴 글입니다』 등을 썼다. 작은 한옥을 고쳐 '성북동소행성'이라 이름 붙이고 '독하다토요일', '소금책' 등 돈이 되지 않는 모임을 계속 하고 있다. 유머와 위트 있는 글을 지향하며 출판기획자인 아내, 말 많은 고양이 순자와 산다.

아나운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제가 아는 아나운서 중엔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아는 작가님의 북토크 현장에서 진행자로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 윤 아나운서는 너무 밝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바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는데 답변락에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유명인이 쓴 글 특유의 쯤제하거나 고상한 척하는 기색 없이 생활에서 느낀 점들을 쓰는데도 읽을 때마다 늘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낸 첫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의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는 유명인이 낸 책이라 잘 팔린 게 아니라 잘 팔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썼는데, 마침 유명인이라 더 잘 팔린 것이라 해야겠죠. 제목이 지나치게 깎니다. 스물한 자나 됩니다. 그러나 읽어나가다 보면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여행 가고 싶어도 자꾸 미루며 삽니다. 결혼하면, 대학 가면, 아이들 크면, 적금 타면, 바쁜 일 지나면, 이것만 끝나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이 먹고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갑니다. 윤 아나운서도 그랬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성화에 얼른 결혼했고,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이들 중학생 때 미국 유학을 결정하는 바람에 학비를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목사인 남편은 착하고 다정하지만 돈 버는 능력은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친 듯이 일만 하던 윤 아나운서의 진면목이 드러난 건 제주도에 마련한 ‘무모한 집’부터였습니다. 4년 전 명절에 시댁에 안 가고 혼자 여행을 떠난다고 선언하고는 정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쁨을 알게 된 윤 아나운서는 제주도에서 자신만의 아지트를 마련할 결심을 합니다. 7년 연세* 계약으로 빌린 집에 가구를 들고 조명, 수납장, 냉장고까지 다 바꾸는 대대적 수리를 하는 걸 보며 주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건 안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은 윤 아나운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도 무모한 집이 된 것입니다.

무모한 집은 제주도에 있지만, 윤 아나운서는 여전히 서울의 홈쇼핑에 나가고, 각종 행사의 사회도 보고, 사업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주치면 늘 활력이 넘치는 건 그리스인 조르바를 닮은 낙천성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해야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걸 위해서는 사업도 열심히 해야 하니 가만히 앉아 걱정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영미라는 흔한 이름도 원망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영미투어, 영미상회 등으로 발전시킵니다. 물론 은행에 대출 연장하러 갔다 오는 길에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떳떳한 삶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누가 살 거냐로 잔머리를 쓰는 대신 밥값은 언제나 자신이 내고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과는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버립니다. 나이 들어도 끈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거죠. 제가 이 책을 사서 처음 펼쳐 읽은 부분이 ‘끈대란 무엇인가’라는 꼭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만 읽어도 본전은 한다는 생각이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공감되는 또 다른 의견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넘칩니다.

게다가 ‘산다는 것은 곧 말썽’이라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을 비롯한 『혼불』의 최명희 작가,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 출연한 영화배우 앤디 맥다월, 문정희 시인, 천상병 시인, 아인슈타인 등의 명언이 곳곳에 인용됩니다. 문화적으로 충만한 아나운서가 쓴 책 한 권으로 동서고금의 통찰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책 뒷부분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란 질문을 던집니다.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출세한 사람... 윤영미 아나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천성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잘 노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읽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건강하게 돌아보게 되는 책입니다. 



『불수있을 때 불고 불수있을 때 보고 갈수있을 때 가고』
영미의 지음 | 영스북 매번

* 연세: 월세 혹은 전세와는 달리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임차인이 적지 않은 돈을 임대인에게 주고 난 뒤 돈이 없어진다고 해 ‘죽는 세’라고도 불리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계약 형태다.

영화로운 나날

「엘리멘탈」 내가 원하는 네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너



김인혁 에디터

콘텐츠 에디터. 구독 중인 OTT 서비스만 5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보다는 글로 쓰는 재주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 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 주말에는 「주간영화」와 「오늘은 쉽니다.」라는 뉴스레터를 마감하며 보내는 편이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Pixar)'의 성공비결은 '보편성'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장난감 친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것이다. 또 밤이 되면 벽장 속에서 털복숭이 괴물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 픽사는 이런 소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거기에 픽사 특유의 발랄한 상상력을 한 자밤 더하면 「토이스토리」나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명작이 완성된다.

픽사의 보편성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란 한정된 주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주제를 향해 그 영역을 싹 틔우며 넓혀 나간다. 픽사의 최신작 「엘리멘탈」 역시 픽사의 강점인 보편성을 한 층 더 확장한 영화라고 볼 수 있다. 픽사가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는 최근 다양한 미디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성'이다.

영화 「엘리멘탈」은 불/물/공기/흙, 네 가지 원소가 사는 엘리멘트 시티에서 우연히 만난 불 원소 '엠버'와 물 원소 '웨이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엘리멘탈」이 특히 한국에서 사랑받은 이유는 바로 한국인 이민자의 삶이 영화 곳곳에 일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독을 맡은 한국계 이민자 출신 피터 손은 인터뷰를 통해 1세대 이민자인 그의 부모님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세대 이민자인 아버지 버니와 2세대 이민자 엠버 사이의 갈등, 불 종족만의 독특한 문화 등 한국적인 색이 묻어나는 장면들 역시 이 영화의 또 다른 즐길 거리기도 하다.

한국인 1세대 이민자들의 개척 서사를 담아낸 「미나리」, 이민자 가정의 갈등을 다뤘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등... 다양성의 시대에 맞춰 소수인 ‘이민자’들의 서사가 담긴 영화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과연 픽사는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픽사만의 방식으로 풀어냈을까? 여기서 픽사의 힘, 보편성이 또 다시 빛난다. 현실적이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제를 풀어내는 방법. 픽사가 찾아낸 그 해답은 바로 ‘사랑’이다.

성장 배경, 성격, 그리고 속성까지...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엠버와 웨이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사랑에 빠진다. 영화는 두 주인공의 관계를 통해 영화적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양성이란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내놓고, 해답을 제시한다.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듯 영화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닌 관심, 이해가 아닌 수용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시 건넨다.

또한, 엠버와 웨이드 사이의 관계에는 인종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의 차이 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다양한 이해관계 역시 얽혀 있다. 엠버가 사는 작은 집과 대비되는 웨이드의 고층 맨션, 노동자 계급의 엠버와 대대로 예술가 집안 출신인 웨이드. 서로 대비되는 요소들을 영화 내내 반복적으로 나열하면서, 영화는 이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곳곳에 남겨 놓는다.

무엇보다 「엘리멘탈」은 이런 메시지들을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시각적인 연출로 관객에게 직접 보여준다. 특히 원소들의 특징을 살린 CG와 영상미는 이 영화를 메시지만 좋은 작품이 아닌, ‘보는’ 영화로서도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동안 유년기의 추억이라는 ‘과거’를 주로 소재로 택했던 픽사가,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군대’에서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더 피부로 다가올 것 같다. 서로 처음 만난 엠버와 웨이드가 그랬듯, 어쩌면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가장 큰 벽은 증오가 아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 영화는 개인과 집단 간의 혐오와 증오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두를 아우르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엘리멘탈」

시와 비행하다

신도시(新都市)



강혜빈 작가

뉴노멀이 되고 싶은 양손잡이. 시를 쓰고 씩습니다. 2016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사진가 '파란피'로 활동 중입니다. 문예창작과 불문학을 공부하고, 다수의 문예지 및 잡지에 시와 에세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구름을 만들듯이, 희미한 빛들이 모여 어두운 귀퉁이를 밝게 비추듯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듯이, 세상에 없던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노트]

어느 여름밤, 화자는 '너'라고 지칭되는 이와 함께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다. 화자가 하는 행위 라곤 일렁이는 물을 보는 것, 다가오는 오리 두 마리를 발견하는 것, 오리를 바라보는 '너'를 관찰하는 것. 모두 '보는 사람'이 되는 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어쩌면 사랑의 신호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과 사랑 아닌 모든 것 사이에서/느리게 걸어도 될까" 자문하는 화자에게 사랑이란, 서성임이다.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사랑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들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일, 박자가 어긋난 춤과 같은 행위가 사랑 그 자체라고. 그는 생각한다. 아무래도 호숫가에 늘어진 고층 아파트에 살 것 같은, 아무런 걱정 없이 집 앞을 산책하는 사람들과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인물들. 어디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된다. 그저 물을 바라보러 온 것인데, 물을 마시고 물을 버리고, 얼음은 녹고, 호수는 가득하고, 눈물은 차오른다. 정물처럼 미동이 없는 오리의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 엽서처럼 그려진다. 화자는 다만 정지된 풍경으로부터 '너'와의 이별을 직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시간 동안 오리를 바라보며 오리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은 분명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비어 있는 벤치들. 잠시 앉을 곳은 많지만. 떠난 사람은 언젠가 일어서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떴다 감는 것처럼.

여름밤, 호숫가에서 오리를 보았다

한 쌍의 오리
그런 말은 실례가 될까봐

「온다, 오고 있네,
여기로 온다」

그렇게만 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
칭찬을 하지 않듯이

커피와 페퍼민트 사이에서
페퍼민트를 고른다

사랑과 사랑 아닌 모든 것 사이에서
느리게 걸어도 될까

점점 가까이 걸어오는
두 마리의 천사

날개를 털 때마다
하얀 깃털이 떨어진다

웅덩이에 앉아
작은 부리를 마주 댄다

너는 한 시간 동안 오리를 바라보면서
오리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여기에서 아주 사는 걸까
둘은 가족일까
목이 마른 걸까

투명한
눈 안의 오리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호수는 가득한데
끝내 울진 않는다

고층 아파트의 불빛들이
물에 비쳐 실타래처럼 일렁인다

*오리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오리는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걱정 없이
매일 이렇게 산책하겠지

아케이드에 늘어선 벤치들

「눈 감았어
다시 떴어」

너는 몇 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온다

나는 그동안
작아진 얼음을 세어본다

「아니야
다시 감았어」

오리는 아까부터 미동이 없다 

생각하는 그림

도(刀)와 검(劍)



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刀)와 검(劍)입니다. 도와 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칼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칼이나 커터칼과 같이 외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칼을 도라고 합니다. 반면, 검은 양날의 형태이며, 앞쪽뿐 아니라 뒤쪽도 칼날이 있기에 사용하는 사람도 위험하기에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양날의 검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바로, 말(言)입니다.

먼 옛날 칼이라는 물건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 오늘날처럼 그리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칼에는 칼날도 생기고 크기가 커지면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날카롭게 칼날을 다듬었고 결국 칼은 위험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언어가 생긴 이유는 누군가와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즉, 원활한 소통에 있었죠. 하지만 소통의 과정에서 혹은 일상에서 사람들은 감정과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언어에 날이 생겼고, 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날카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회의와 토론을 진행할 때도, 누군가를 교육하는 과정 또한 모두 말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말에는 보이지 않는 긍정의 힘 또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짧은 안부 인사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의 한마디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지 않은 말이나 가벼운 언행은 누군가에게 되레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과 말은 떼려야 뗄 수 없기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 등이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을 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몇 번씩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포함한 누군가 상처를 입는 사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공군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말을 하셨나요?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말도 칼과 같이 신중하게, 또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공군인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을 위해 건전한 말하기 습관을 지니길 바랍니다! 

공군인의 편지

풍요로운 추석, 잊혀가는 추억

상병 박승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세상이 더 편리해지기를 희망한다.

어렸을 적 추석은 늘 기대되는 명절이었다. 내 기억 속 가장 강렬한 추석 장면은 방에서 사촌 형, 누나와 놀고 있으면 전을 직접 지져 가져다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우리 집은 농사짓는 집안이 아니었지만, 추석은 풍요롭고 화목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신조였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다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를 향한 사랑으로 지진 전을 두둑이 먹고도, 저녁엔 할머니와 큰어머니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시는 밥상을 군소리 없이 먹었다.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면 좁은 거실에 모여 바닥에 요를 깔고 옷놀이나 화투를 치곤 했다. 놀이하다 보면 몇 달 동안 못 봤다고 소원해졌던 삼촌, 숙모와의 관계를 금방 회복할 수 있었다. 놀이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명절에 할만한 말들을 서로 많이 나눴다.

밤엔 평소 자던 익숙한 침대가 아닌 바닥이기도 하고, 또 귀뚜라미는 어찌나 울던지 새벽까지 뒤척이다 잠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라는 것이 행복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명절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는 횟수는 줄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 느꼈던 명절의 행복함과 소속감을 점차 잃어갔다. 시골에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아, 친구가 더 보고 싶다며 같이 할아버지 댁에 가자던 부모님에게 매몰차게 대했다. 만약 그때 잠시 나의 일을 미루고 손자를 기다리시는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에 후회가 된다.

비단, 할아버지 댁을 찾아뵙지 않았던 것만이 내 잘못은 아니다. 휴가를 나갔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적고, 친구를 만나느라 바빴던 나의 모습도 잘못이다. 이번 휴가에는 누구보다 아들의 휴가를 가장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혹시나 나를 가장 응원하고 있을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았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두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추석은 농가엔 풍요의 시간, 가족에겐 화목한 단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여기서 마친다. ■



책 읽는 공군 『인생우화』 우리들의 이야기

일병 성민준

유체역학을 좋아하는 기계공학전공 대학생,
KF-21 보라매 같은 전투기 개발을 꿈꾸며 공군에 입대했다.

한 천사가 신의 명령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 보따리 챙겨 하늘로 올라가다 추락했다. 보따리 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곳에 떨어지게 됐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된 마을이 ‘해움’이다. 『인생우화』는 해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놓은 이야기다.

사람들은 흔히 우화(寓話)가 풍자나 해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으므로 우리 삶과 동떨어진 과장된 허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가가 『인생우화』에서 묘사한 해움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자세와 아주 다르지 않았다. 지금의 현실을 조금 과장한 것에 불과했다.

『인생우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제발 내가 나라는 증거를 말해주세요.>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손목에 묶은 붉은색 끈에 의지하다가 그 끈을 잃어버리자 혼란에 빠진 주인공을 보여준다. 신분·의상·지위·직업에 압도돼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는 사람은 책 속에만 있지 않다. 꿈도 없이 대학에 붙으려고 집착하고, 무턱대고 명품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많다.

또 다른 에피소드인 <해시계를 해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마을에 새로 만든 해시계를 지키기 위해 해시계에 지붕을 짓고, 울타리를 놓은 이야기다. 비본질적인 ‘해시계를 지키는 것’에 사로잡혀 정작 본질적인 ‘해시계를 쓰는 것’을 잃었다. 부차적인 걸 하다가 결국 중요한 걸 잃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우리 주변에 많다. 예쁘게 필기하고 잘 꾸며놓은 복습 노트를 더럽히기 싫어

서 그 노트로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이 해시계를 지키기 위해 해시계 위에 지붕을 만들어 놓은 해움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인생우화』는 해움 사람들에 빗대어 우리 모습을 성찰하게 한다. 필자는 해움의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몇몇 에피소드에 나온 해움 사람의 풍자적 모습은 필자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그대로 서술해놓은 것만 같았다.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동화작가 장 드 라 폰텐(Jean de La Fontaine)은 “모든 인간은 우화적 세계 속에서 태어나며, 따라서 우화적 세계 속에서 사유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사유하는 곳, 그리고 사유하는 방식을 이 책은 잘 꼬집고 있다. 몰입을 방해할만한 너무 뜻밖인 이야기들도 없고, 충곤하게* 짜여진 이야기 속에서 에피소드마다 사색할만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충곤하다(忠愍하다): 아주 참되고 정성스럽다.(충성 충(忠), 정성 곤(愍))

토닥토닥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

파리 오르세 미술관엔 미술에 관심 없는 이조차 한 번쯤은 들어본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모네의 「수련」 등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이 가득하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다. 끝이 검은 길쭉한 무언가는 제목을 봐야 정체를 알 수 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작은 그림이 인상파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Eduard Marnet)’의 자존심을 대표한다.



에두아르 마네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
캔버스에 유채, 16.9x21.9cm, 1880년, 오르세 미술관

마네는 사회적인 스캔들에 휩싸였던 문제 화가였다. 1863년 홀로 옷을 벗고 뺨히 쳐다보는 여성을 그려 넣은 「폴발 위의 점심」으로 미술계로부터 지탄받았지만, 1865년 그는 프랑스 예술계 대표 전시회 ‘살롱전’에 더욱 도발적인 「올랭피아」란 성매매 여성을 그린 그림을 출품했다. 그는 지난 서양 미술사 500년을 지배한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에 실제처럼 그리는 시도나 종교·신화 등 익숙한 주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직접 경험한 그는 그림 본연의 의미를 찾으려 평생 노력했다.

1880년 미술수집가 샤를 에프루시는 마네의 정물화 「아스파라거스 다발」을 구매했다. 작품의 가격은 800프랑이었지만 그는 그림에 흠족해하며 마네에게 1,000프랑을 보냈다. 200프랑을 더 받은 마네는 작은 캔버스를 하나 꺼내와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를 그린 후 “먼저 보낸 다발에서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편지와 함께 수집가에게 그림을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방문객이 넘쳐나던 파리에 갑작스러운 적막이 흘렀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내 직업도 사라졌다. 난 미뤄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관심도 없던 요리에 도전하는 등 무엇이든 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며 가끔씩 우울함에 끝도 없이 가라앉곤 했다. 그럴 때마다 술한 비탄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그림을 그린 마네를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림을 설명하던 경험을 글로 담았다. 그렇게 출간한 책이 『기묘한 미술관』이다.

마네의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는 내게 빛이 된 그림이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품위 있게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예술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고, 삶의 위로를 건넨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을 위해 휴대전화 배경 화면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좋아하거나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한다. 



진병관(프랑스 정부 공인 문화해설사·작가)

벅스뮤직/엠넷미디어에서 뮤직콘텐츠 및 사이트 기획자로 근무하다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2009년 파리로 떠났다. 파리스진전문학교(EFET)와 국립산업예술대학교(CNAM)를 졸업 후 사진가, 프랑스 정부 공인 문화해설사, 작가로 활동중이다. 저서는 『기묘한 미술관』, 『위로의 미술관』이 있다.

마음의 소리

송나영

rnrwldl**@naver.com

표지가 너무 귀엽네요. 올여름, 8월이 유난히 힘든 건 폭염·폭우 탓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일반실로 옮겨졌지만, 상주 보호자로 24시간 곁에서 병간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안정돼 한숨 돌리니 챙겨온 책과 월간 『공군』 등의 읽을거리가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줍니다. 잘 읽었습니다.

AF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구독자님, 월간 『공군』이 힘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가족분께서도 얼른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석현

choseok**@naver.com

한국전쟁 73주년 및 정전 70주년을 맞아 호주공군 방문 취재기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활약한 호주공군의 헌신에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호주공군과 나란히 서서 세계 평화를 위해 굳건한 약속을 다진 우리 공군의 모습도 참으로 든든하고 믿음직합니다. 지구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푸른 하늘의 수호자 간의 협력을 응원합니다!

AF

호주에 가신다면 취재팀이 다녀온 윌리엄타운 역사기록센터, 호주 전쟁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공원에 방문하시는 일정도 고려해보세요~

박순화

swaha12**@daum.net

가을 휴가를 맞아 가족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차에 ‘해외여행 갈 때 챙기면 좋은 상비약’ 소개를 만나 매우 유의했습니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메모해렸습니다. 재미있고 보람된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중에 아프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F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여행 시에도 챙기시면 유용하고, 상비약으로 갖춰두시면 더 좋습니다.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ekgald123@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543

가을 하늘처럼 맑은 한가위 되세요!

추석에도 공군은 우리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